

5·18 진상규명·정신계승 대선 핵심 이슈로

문재인 민주당 후보 대선주자 첫 광주·전남 공약 발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발포명령자 규명·임행진곡 기념곡 지정
에너지신산업 메카·문화수도 육성·광주형 일자리 전국 확산 등
민주당 안희정·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손학규 공약 발표 주목

‘선택 2017’ 대선 D-49

37년 간 여전한 미완의 진실로 남아있던 80년 5·18 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정신계승 발전이 19대 대선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유력 대선 주자들이 다음 정부에서 최초 발포명령자 등 80년 5월 광주의 진실규명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약속하고 나섰다 때문이다.

〈관련기사 2·3·4·5면〉
특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경선 후보가 20일 대선 주자 중 처음으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완벽한 5·18 진상규명,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 기념곡 지정 등을 대선 공약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키면서 다른 대선 주자들의 5·18 관련 대선 공약이 주목되고 있다.

문 후보는 이날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정신·미래성장동력·일자리 등을 키워드로 한 광주·전남지역 공약을 공개했다.

우선 5·18 민주화운동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를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의 숙원사업이었던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한국 민주주의 전당·인권평화교류센터 등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 조성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특히 문 후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공식기념곡으로 지정하고, 국가 차원의 5·18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법 개정을 통한 5·18 정신 훼손 시도를 엄벌하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명령자 및 헬기기총사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부와 군이 보유한 5·18 관련 자료 폐기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광주 내 5·18 유적지 보존을 통한 진실훼손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약속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도 지난 15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총소사를 비롯해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겠다. (5·18) 공식 진상보고서를 채택하고 찢개를 치르지 않은 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오는 22일 전북도

의회에서 발표할 호남발전 정책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공약이 어떻게 포함될 지 주목된다.

안희정 경선 후보 또한 지난달 12일 광주를 찾은 자리에서 “범죄 책임자가 낱알이 가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히고 그 진실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정의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함에 따라 안 후보의 지역 공약에도 5·18 관련 공약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대선 주자인 안철수 경선 후보도 지난 1월 전일발당을 찾은 자리에서 “철저히 현장을 조사하고 발포 명령자를 찾는 것은 다음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손학규 경선 후보도 전일발당 헬기 난사 진실규명과 전남도청 원형복구를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선 주자 중 처음으로 광주·전남 공약을 발표한 문재인 경선 후보는 ▲나주 공동혁신도시를 거점으로 한 ‘대한민국 에너지신산업의 메카’ 육성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사업 축소로 지지부진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정상화 통한 ‘문화수도 광주’ 건설 등을 약속했다.

또한, 자동차 전장부품산업기반 조성과 자율주행 커넥티드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을 통한 친환경자동차 생산기지 및 부품단지 조성과 ‘광주형 일자리 모델’ 전국 확산 등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특히 초고령사회의 핵심질환인 심혈관질환 관리·연구의 국가거점 육성을 위해 광주에 국립심혈관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지역에 대해서는 ▲첨단과학기술 융복합 농수산업 생산기지 조성 ▲부산~목포 해안관광도로 건설 ▲목포 크루즈항 개발 ▲이순신 호국 거점’을 중심으로 한 호국·관광벨트 조성 ▲여수 해양관광과 순천 생태관광 활성화,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권 개발 등을 약속했다.

또한, ▲광양항 기반시설 확충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분원 이전 추진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KTX 무안국제공항 경유 등 무안공항 서남권 거점공항 육성 등도 공약에 포함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5·18 최후의 항전지서 비전 발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0일 오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광주·전남 지역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포토라인 서는 박근혜 어떤 메시지 남길까?

파면 11일 만에 ... 오늘 오전 9시 30분 검찰 출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에 출석한다.

〈관련기사 3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부녀 대통령’의 영광을 누렸던 박 전 대통령은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

중앙지검장)는 21일 오전 9시 30분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날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11일 만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과 사익 추구를 지원한 점이 인정돼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이 라는 방패 없이 검찰의 조사를 받는 건 장

기간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조사에선 ▲삼성 특혜와 관련한 뇌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연결된 직권남용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청사에 도착하면 출입문 앞 노란색 테이프로 표시된 포토라인에서 서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게 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하는 21일 오전 메시지를 준비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20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전했다.

박 전 대통령측의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내일 검찰 출두에 즈음해 박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실 것이다. 준비하신 메시지가 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창사 65주년 | 호남예술제 62주년 기념공연
2017 트리오 광주공연
정명화 | 손열음 | 신지아
2017. 3. 28(화)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주최 광주일보 · 아시아문화 | 문의 (062)220-0541 | 예매 티켓마루 1588-0766

AI 재확산 차단 비상

나주·영암 등 6개 시·군

새끼 닭·오리 입식 제한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집중되는 전남 일부 지역의 새끼 오리나 닭 입식이 제한된다. 전남도는 20일 “21일에서 22일까지 나주, 영암, 무안, 장흥, 강진, 해남 등 6개 시·군과 소하천, 발생지 500m 이내 지역에 가금류 이동을 제한하고 이달 말까지 입식 자체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나주는 21일까지, 영암, 무안, 장흥, 강진, 해남 등은 22일까지 가금류 이동이 중지된 상태다. 이들 지역에서 대해서는 시·군이 매주 계열사 입식계획을 접수하도록 하고 검사 항목을 점검한 뒤 입식을 승인하도록 했다.

영암은 오리 사육량이 많아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이며 나머지 시·군은 최근 발생 지역이다. 특히 다솔, 사조 화인코리아, 정다운, 성실 등 도내 가금류 축산 90% 이상을 차지하는 계열사들은 최근 간담회에서 이달 말까지 입식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야생조류 이동은 거의 끝났지만 남아있는 감염원이 계열 축산차량 등에 의해 옮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 위험요인을 차단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동제한 해제 후 새끼를 입식한 14개 방역대, 41 농가, 155만5천여 마리 가금류에 대해서도 출하 전 검사, 축사 동별 폐사 상황 보고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또 계열화 농장에서 잇따라 AI가 발생하는 데 적인해 축산계열화 사업자 방역 강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AI 발생 시 살처분 비용을 사업자에 부담하도록 하고 지속해서 발생하면 시장·군수가 사육제한도 명령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11월 이후 모두 33건의 AI가 발생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선박사고 ‘魔의 바다’ 여수 소리도 ▶6면

新 湖南誌-영산강 뱃길 흥어 맛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2017 PINK RUN

핑크런 광주대회

핑크리본사랑마라톤에서 핑크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17.5.14.(일요일)

광주 월드컵경기장

종목 10km / 5km

참가비 1만원,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

기념품 기능성 마라톤 티셔츠

참가문의 핑크런 사무국 (1688-9744)

참가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접수 www.pinkcampaign.com

후원 보건복지부, 한국유방암학회

협찬사 광주일보, 전남일보, 광주MBC, KBC광주방송, KBS광주방송총국

A MORE BEAUTIFUL WORLD / AMCF 20by20

한국유방건강재단
Korea Breast Cancer Foundation

